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파라과이 역사 교과서에 묘사된 삼국동맹 전쟁

임지민

2013년 한국은 역사 교과서 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역사 교육에 대한 토론이 연일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선 20세기를 거치며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 6.25 한국 전쟁과 분단 같은 국제 정치학적 이슈들이 여전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역사 교육이 실행되어 온 반면,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정부의 역사 인식에 맞추어 교과서도 수시로 개정되었다. 특히 국사 교과서의 정부 검열이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이유는 국사 교육이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역사 인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한 이유로 빈번하게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한국은 저항과 끈기가 민족의 중심 가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겪고 민족의 저항정신을 키워간 남미의 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파라과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라과이는 1811년 스페인에게 독립을 선언한 이후 이웃국가들과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러야 했다. 1864년부터 1870년 사이에는 삼국동맹을 맺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이를 파라과이 전쟁 혹은 삼국동맹 전쟁(Guerra de la Triple Alianza)이라고 한다. 이 전쟁으로 파라과

이는 멸망 직전까지 몰렸으며 영토와 인구를 크게 잃었다. 이 전쟁은 현재까지도 파라과이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1932년부터 1935년 사이에는 볼리비아를 상대로 차코(Chaco)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고, 현대 무기가 도입된 4년간의 전투는 파라과이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를 차코 전쟁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삼국동맹 전쟁이 종료된 1870년부터 현재까지 파라과이의 역사 공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파라과이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삼국동맹 전쟁이 파라과이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1870년 이후 약 140년간 파라과이의 역사 교과서가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쳤는지 분석해보았다. 한 역사적 사건이 정권을 잡은 정부와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 교육을 비교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삼국동맹 전쟁의 발발과 결과

삼국동맹 전쟁의 발발 원인과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

파라과이는 스페인에게서 독립한 이후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적 통일과 안정을 추구하며 발전해 나갔다. 프란시아(José Gaspar Rodríguez de Francia)는 파라과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스스로를 독재자로 명명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시켰다. 특히 독립 이후 내부 정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아르헨티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 국경을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무상 의무 공교육을 실시해 당시의 국민들은 문맹률이 매우 낮았으며, 행정과 경제 구조를 재편해 나라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갔다.



파라과이 지폐 속 솔라노 로페스 대통령
(이미지 출처: <http://ivanstreasury.blogspot.kr/>)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844년에 안토니오 로페스(Carlos Antonio López)가 정권을 잡아 고립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유럽의 기술자들을 불러 파라과이에 기술을 전파하고 교육시키도록 했다. 특히 그는 군사력을 점차 증강시켜 파라과이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웃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강해졌다.

1862년 안토니오 로페스 대통령이 사망하자 아들인 솔라노 로페스(Francisco Solano López)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바로 솔라노 로페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2년 후 삼국동맹 전쟁이 발발하게 되며, 1870년 그의 죽음을 끝으로 전쟁이 종결된다. 솔라노 로페스 대통령은 현재 파라과이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추대되고 있으며 각종 지폐, 동상, 거리 이름 등에서도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오늘날까지도 진화 중이다. 승전국들은 파라과이의 대통령 솔라노 로페스가 스스로를 남미의 나폴레옹으로 자처하며 주변 지역을 점령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한 마디로 모든 전쟁의 책임은 이웃국가를 먼저 공격, 침략한 솔라노 로페스에게 있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시각은 당시 남미 시장의 개방을 종용하던 영국이 파라과이에 자유무역을 강요하려고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를 부추겨 벌인 전쟁이라는 해석이다.

5년 넘게 지속된 전쟁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전쟁 초반 강세를 보이던 파라과이 군은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 국토까지 쳐들어갔으나 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동맹으로 급격히 전세가 역전되어 패배하게 된다. 전쟁 중 콜레라 역병으로 많은 군사를 잃었고 특히 파라과이는 전체 인구의 60%, 그 중 남성 인구의 80%를 잃어 여성만 남은 국가가 되었다. 또 약 40%의 영토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양도해야 했다. 파라과이에 속했던 이과수 폭포 지역이 바로 이 전쟁의 결과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3분 되었다.

대학살(genocide)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구가 사라진 삼국동맹 전쟁은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오늘날까지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파라과이 역사는 1870년 전과 후로 구분된다. 그리고 140년이 흐르는 동안 정권에 따라 교과서에 묘사되는 전쟁의 해석에 여러 번 변화가 있었다.

파라과이 역사 교과서에 묘사된 삼국동맹 전쟁

파라과이 역사 교과서에 묘사된 삼국동맹 전쟁은 극단적이라 할 만큼 세 차례의 굽직한 변화를 겪으며 그 해석이 달라져갔다. 변화의 시기에 따라 편의상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1870년부터 1930년까지의 60년, 두 번째가 1930년부터 1990년까지의 60년,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약 20년이다.

1) 1870년~1930년: 자유주의 사상

파라과이의 솔라노 로페스가 사살된 1870년에 전쟁은 끝이 났고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지배를 받았다. 파라과이가 멸망하지 않고 국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완충지 역

할을 했기 때문이다.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유럽과 미국의 지지를 받던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헌법을 따르고 있었고 동일한 모델의 헌법을 파라과이에 제정했다. 새로운 파라과이의 지도층은 예전부터 아르헨티나와 협력한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파라과이는 급격히 개방되었다.

이 시기의 파라과이의 역사 교육은 아르헨티나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승전국의 입장에서 서술된 교과서를 이용했다. 승전국의 입장이라 함은 삼국동맹 전쟁 이전의 파라과이 정권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시각이었다. 교과서는 독립 이후 이어진 프란시아 정권과 로페스 정권이 폐쇄적, 독재적이었다고 강조하며 전쟁의 원인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폐쇄 정책과 로페스 대통령의 위험한 야심, 횡포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1870년 이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덕분에 파라과이가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해 파라과이 국민들은 ‘다행히’ 국제사회에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구제될 수 있었다고 묘사된다. 특히 솔라노 로페스 대통령의 이미지는 자국민을 유린하고 사살한, 난폭한 미치광이로 굳어져 갔다.

이렇게 1870년 이전의 파라과이 역사는 부끄럽고 잊혀져야 할 역사로 가르쳐졌으며 교과서는 철저히 승전국의 시각에 따라 삼국동맹 전쟁을 묘사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 저술학자로는 후에 파라과이 대통령직(1905~1906)을 역임하기도 한 바에스(Cecilio Báez)가 있다.

2) 1930년~1990년: 민족주의 사상

1930년대에 파라과이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바로 차코 전쟁(1932~1935)이 일어난 것이다. 볼리비아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파라과이는 120,000 km²의 넓은 영토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민족의식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영광까지 얻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36년 차코 전쟁에 참여했던 대령 라파엘 프랑코(Rafael Franco)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한 정책은 솔라노 로페스를 국가의 최대

영웅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솔라노 로페스는 더 이상 난폭한 독재자가 아닌 사랑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받쳐 싸운 끈기와 저항의 대명사로 다시 태어났고, 그의 희생 덕분에 파라과이가 뿔뿔 뭉쳐 차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논리가 탄생했다. 국가 주도의 역사 교육도 이에 맞추어 크게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전까지 사용되던 세실리오 바에스가 집필한 교과서는 출판이 금지되었고, 대신 민족주의와 반공을 앞세운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통용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우수한’ 파라과이 민족성이 점차 고조되던 때, 1954년 알프레도 스트로스네르(Alfredo Stroessner)가 등장해 35년 간 이어질 독재정치가 시작된다. 스트로스네르 장군 역시 차코 전쟁에 참전했던 전쟁 영웅이었다.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 민족주의와 반공을 특징으로 한 역사 교과서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가 권력을 잡은 35년 간(1954~1989) 파라과이의 역사 공교육은 단 하나의 국정 교과서로 이루어졌고, 그가 직접 임명한 역사학자 루이스 G. 베니테스(Luis G. Benítez)가 모든 집필을 맡았다. 스트로스네르 대통령은 역사 교육을 통해 삼국동맹 전쟁의 저항 정신과 차코 전쟁에서의 용감한 국민성이 오늘날의 위대한 정권을 탄생시켰음을 강조하며 역사 교과서를 자신의 권력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파라과이 중학교에서 사용된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전체 분량의 25%가 삼국동맹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솔라노 로페스 대통령은 용감하고 똑똑하며 이웃국가들의 모함에 의해 사살된 민족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에 대한 찬사가 가득한 반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대해서는 ‘교활함’, ‘배신’, ‘비겁함’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웃국가들에 대한 적대감을 원색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삼국의 비밀 동맹 문서가 파라과이의 대학살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한 영국에 큰 책임이 있다며 자유무역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는 제국주의



아르헨티나 화가 Cándido López가 그린 <Batalla de Tuyuti>
(이미지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에 대해 비판적이던 1968년 이후의 역사 수정주의 (historical revisionism)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역사 수정주의의 시각이 아르헨티나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던 영국의 전쟁 관여 여부는 1982년에 아르헨티나가 영국과 벌인 포클랜드 (말비나스 제도) 전쟁 이후 아르헨티나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3) 1990년~2013년: 민주주의 사상

1980년대 남미의 군사 정부들은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에 하나 둘씩 무너져 내렸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로 이어진 군사독재의 종결은 파라과이도 비켜갈 수 없어서 파라과이의 스트로스네르 대통령도 쿠데타로 1989년 물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35년간의 철권정치가 막을 내리며 파라과이는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파라과이에 일어난 또 다른 큰 변화는 1991년 메르코수르(Mercosur), 즉 남미공동시장 가입이다.

약 120년 전에 총칼을 겨누고 싸우던 교전국들(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끼리 더 효율적인 경제 블록과 연합을 위해 공동의 경제 시장을 창설한 것이다. 이 일련의 개방은 파라과이 공교육과 역사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1992년 파라과이는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통해 의무 취학 기간과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에 관한 법도 바꾸었다.

우선 정부(교육부)에서 직접 편찬하던 역사 국정 교과서가 민간단체에서 집필, 출판할 수 있도록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또한 메르코수르 참여 국가들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SEM(Sector Educativo del Mercosur)이 창설되어 4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됨에 따라 교과서 내에 이웃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을 줄여달라는 권고 사항이 각 회원국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파라과이는 더 이상 하나의 고립된 국가가 아닌, 남미라는 거대 블록의 한 멤버로서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파라과이의 역사 교과서는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웃국가들에 대한 적대감도 한층 줄어들어 ‘우리’ 대 ‘적’의 구도가 아닌, ‘전쟁’ 대 ‘평화’의 구도로 삼국동맹 전쟁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적에 대한 책임 추궁과 비난에서 멈추지 않고, 전쟁의 참혹함과 무의미함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라과이의 역사 교과서는 바뀌어 갔다. 아울러 국가의 최대 영웅으로 자리 잡았던 솔라노 로페스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생겨났다.

물론 국민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기도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전히 전쟁의 책임을 영국이나 파라과이에 돌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역사 교과서에 비해 파라과이의 교과서는 트라우마를 긍정적으로 떨쳐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약 140년간의 세월 동안 파라과이 역사 교과서에서는 삼국동맹 전쟁에 대한 해석이 굵직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 과정은 역사 공교육이 정부의 역사 인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란 결국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로 재탄생한다는 E. H. 카의 견해를 입증하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삼국동맹 전쟁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화하는 중이며, 여전히 진정한 책임자와 피해자를 찾지 못한 채 남미 하늘 위를 떠다니고 있다. 파라과이의 역사 교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을 되새기고 인과 관계를 규명한 후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르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enitez, Luis G. *Historia del Paraguay* (1er curso), Don Bosco, Asunción, 1979.
- Irmina, Lezcano. *Estudios sociales*, Comuneros, Asunción, c.1990.
- Milda, Rivarola. *Historia & Geografía 8*, En Alianza, Asunción, 2006.
- Capucine, Boidin, Capdevila Luc, Richard Nicolas, *Les guerres du Paraguay aux XIXe et XXe siècles*, Paris, CoLibris, 2007.
- Luc, Capdevila. *Une guerre totale Paraguay, 1864-1870*, Rennes, PU Rennes, 2007.
- Christopher David, Brown. *The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Paraguayan School Textbooks*, Essay pour le Master de la science des études latino-américaines à St. Antony'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2009.

임지민 - 파리 소르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